

마음 내려놓기 (하)

양경인 (서울시 중구 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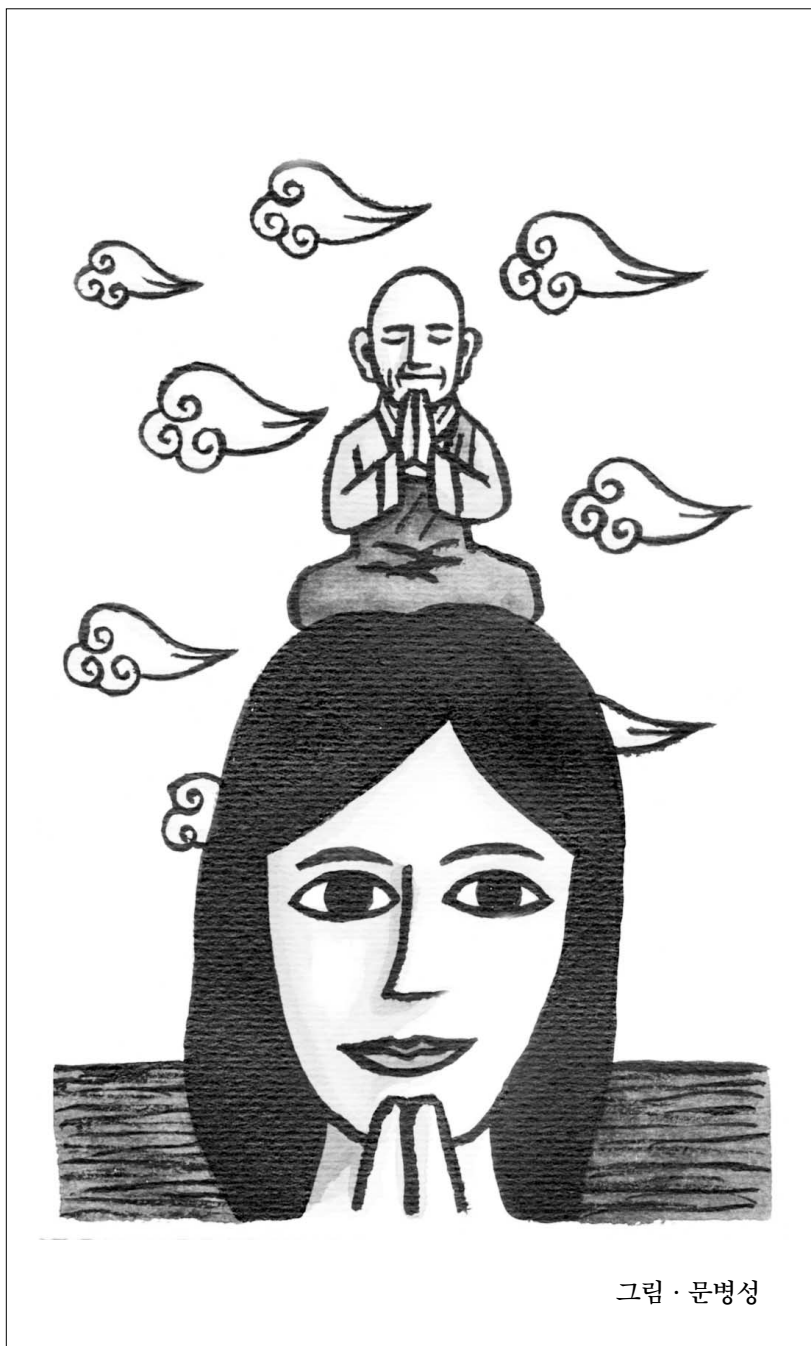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런 순간순간을 세세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답답하기만 한데 두서없는 내 이야기를 언제나 묵묵히 들어만 주시는 스님은 어김없이 녹차 한 잔을 따라 주셨다. "시간 나면 법당에 가서 절을 한번 해보세요. 거창하게 108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삼배만이라도 해보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하세요!" 차 한 잔을 더 권하며 하는 말씀이 내게 와닿곤 했다.

얼마 뒤 스님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시간을 내어 법당에 들러 삼배를 하는데도 왜 절을 하는지, 절을 하는 내 모습마저도 초라하게 여겨졌다.

어김없이 발걸음은 스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다. 스님은 환한 미소로 나를 반기며, 절은 해 보았냐고 물으시는데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또 나의 자화에 가까운 아반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식욕도 점점 잃어가고, 삶의 의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서있을 이유를 상실해가는 나를 스님은 한없이 다독여 주셨다.

"법우님은 참 밝아요. 많은 사람들이 법우님 그런 모습을 좋아 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인성도 밝아서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칭찬이 자자해요."

"최적한 색 말고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접어 입는 청바지가 발발해 보이고 예쁜데... 그래요. 운동화 말고 구두도 신고 그러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아만인 것 같고, 스님께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내 모습마저도 싫어졌다.

그러면 어느 날 손가락하나 까딱하는 행동마저도 조심스러워지자, 먹는 것이 제대로 소화될 리 없는 나는 결국 집밖을 나설 수 없을 만큼 아팠다. 그 누구도 간호해 주는 사람 없이 집에 혼자 누워 있자니 그 처

량함이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머릿속이 꼬박꼬박지는 아찔함을 느끼고 있으니 이리다 죽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을 한잔 마셔도 화장실은 끝없이 가야했다. 약조차 넘어가지 않고 먹은 것 없이 화장실만 들락날락하다 금새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 밤을 보내고 몸을 추스른 뒤 집을 나서는데 비온 뒤 맑게 갠 날마냥 깨끗한 공기가 들숨으로 들어왔다. 온 몸의 피부가 숨 쉬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조금 과장된 것이리라.

햇볕도 따사롭고 너무나 상쾌한 가운데, 목이 말라 편의점을 들어서는데 편의점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하고 반갑게 맞는다. 평소엔 거주장소엔 형식적인 인사

구제하고 본인도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신묘한 지혜 한량없어 모든 중생을 권장하며 인도하고 하늘 사람 용 귀신들의 공양함을 받았으며 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법이 없어지려는 때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 보살. 그 때에 있던 여러 대종들 법에 집착되었거늘 그 때 상불경 보살이 그들의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대들 경멸하지 못하노니 그대들 도를 닦아서 모두 다 부처 되리라...상불경 보살명을 마차매 수없는 부처님 만나 이 경전 말씀한 연구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점 공덕을 갖추어 부처의 도를 빨리 이루었나니

코웃음 치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라 쳐부했던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과 경전 글귀 하나하나가 너무도 감사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야 겨우 글이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어울리며, 견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법우님 법당에 다녀오셨어요? 그동안 절은 계속 하셨나요?" 순간 뜨끔하는 마음과 함께 열린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달려갔다. 법당에 들어서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절을 하는데 좌복에 머리가 닿는 순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하심이구나! 절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심정으로 머리를 낮추시는구나!"

절할 수록 부처님 말씀 가슴에 와닿고

마음의 변화 다스릴 수 있는 여유 생겨

처럼 여겨졌는데,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순간 나도 모르게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다. 물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는 인사에 손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사지 멀정하게 낱아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며,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 나름의 삶에, 역할에 충실하신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길로 둔갑 스님을 찾은 나는 오늘의 경험을 간증하듯 풀어냈다. 그간 소원했었던 기간 동안의 심경과 함께 밀린 숙제마냥 지난 것까지 모두 한숨에 말씀을 드리고 나니 스님이 웃으셨다. 그리고는 책꽂이 한 칸에 복사해둔 종이 한 장을 읽어 보라고 내미시는데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이었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이라는 구도자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존귀한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칭찬하며 다녔다고 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비웃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모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를 하고, 또 삼배를 하고 얼마나 많이 절을 했는지도 모르게 계속 해서 절을 하고, 또 했다.

절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스님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스님과 함께 했지만 나에게 경전의 글귀나 부처님 이야기는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으셨다.

그 날이 계기가 돼 나는 요즘도 가끔 법당을 찾아 삼배를 하고 108배를 한다. 물론 그 일로 인해 내가 한 번에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나쁜 생각과 아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고, 맘이 상하면 욕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절을 하면서 이 모든 마음의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비록 예전처럼 스님을 매일같이 찾아 뵈지는 않지만 오늘은 스님께 전화 한 통화 드려야겠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체탈 도첩 공고

법명	속명	제적사	체탈도첩일
탄공	구회림	인천 보화정사	2006. 6. 21
광진	구봉관	"	"
혜능	신동렬	광주 관음정사	"
서광	이강춘	충남 용마사	"
법정	원상식	경기 관심사	"
지각	박말서	광주 동원사	"
성오	김학녀	경기 포교원	"
보성	김중현	경남 상선암	"
영암	박성원	충남 원묘사	"

위 스님들은 중헌중법 제 3장 8조에 의거 체탈도첩 되었기에 공고 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

탈종공고

● 사찰명: 강선사

● 주 지: 혜경

● 주 소: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07-2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정토사

● 주 지: 응천(박창식)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6. 7. 5

대한불교조계종 삼학불교 총무원장 법하